

구여권 5인 이사 '알박기' 추태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율어진 '6:3' 구도가 드디어 깨졌다. 구여권 이사 6명 중 한 명이었던 유의선 방문진 이사가 지난 8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방문진 사무처는 조만간 방통위에 새 이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유 이사의 공석은 현 여권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진다. '6:3' 구도에서 추 하나가 이동하면서 '5:4', 수평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남은 구 여권 이사 한 명만 더 이탈하면 이제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된다.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의 합법적 해임이 가능해진다.

유 이사가 사퇴하던 날,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해 권혁철, 김광동, 김원배, 이인철까지 방문진 구여권 이사 5명은 부랴 부랴 '기명 성명'을 발표했다. 유 이사의 사퇴에 대해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한 다"면서도 자신들은 "임기를 온전히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마디로 방문진 '알박기'를 공언한 것이다. 이제 한 명만 더 이탈해도 김장겸은 물론 자신들의 자리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에 서둘러 '내부 단속'에 나선 모양새다.

이들이 '알박기'에 들어가며 내세운 명분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힘겨운 노력을 다해왔다"는 것이다. 따져보자. 왜곡, 편파, 불공정 뉴스로 MBC 보도는 영향력, 신뢰도, 시청률 모두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다. 여기에 '이유 없는'

"자진 사퇴 아니면 불명에 퇴진 뿐이다"

방문진법 제1조를 보자. 방문진의 목적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알박기 5인 이사'들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건 방문진법 1조부터 위반하는 것이다.

자진 사퇴하라. 유의선 이사처럼 그나마 최소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명에 퇴진뿐이다. 이미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모욕해 기소된 고영주 이사장은 물론 김광동 이사도 '블랙리스트 사장 면접'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감사'도 임박해 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면, 알박기 5인 이사들은 'MBC 정상화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물결'에 끌려내려올 것이다.



▲ 고영주



▲ 권혁철



▲ 김광동



▲ 김원배



▲ 이인철

뉴스AD 5명 "부역자 되기 싫다" '퇴사'로 저항 인터뷰

뉴스 자막 진행이 주요 업무인 보도국 편집부 AD 5명이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오늘부터 보도국에 출근하지 않기로 했다. 모두 파견직 노동자다. 퇴사까지 불사한 이런 결정의 이유는 명료했다. '공정성을 잃은 MBC 뉴스에 더 이상 일조하기 싫어서'였다.

양세연, 김푸름, 신예은, 민수지, 권혜민.

이들 5명은 불공정한 뉴스를 만드는 데 더 이상 '부역'하고 싶지 않아서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8개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이들은 MBC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일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왜곡 편파 보도들을 보면서 보람은 사라지고 자괴감만 커졌다고 했다. 사측의 일방적인 성명 보도 등에 자막을 넣어야 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아니다 싶은 편파 보도엔, "자막을 넣지 않거나 빨리 빼고 싶은 충동까지 들 정도였다"고 한다.

총파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참도 하고 싶지만, 당장 이들에겐 파업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같은 처지의 파견직 노동자들끼리 조합을 결성해볼까 진지하게 고민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결국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출근하지 않는 것, 이들에겐 생계이자 꿈인 방송 일을 그만 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

"MBC 뉴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파리 목숨인 우리가 이러겠냐"는 이들 5명의 뉴스 편집부 AD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를 요약, 재구성 했다.

■ 정확히 하는 일인가?

930뉴스부터 뉴스데스크까지, 기사 자막 교열을 보고, 원고를 자막 CG실에 넘기고, 큐시트 입력 작성도 해요. 또 생방송 중에 자막을 넣고 빼는 진행도 하고요. 930뉴스, 12시 뉴스는 직접 콜(call) 진행도 하고요.

■ 어떤 게 괴로웠나?

MBC뉴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일 괴로웠어요.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자괴감. 뉴스 내용에 관여할 수 없는 AD지만 그래도 뉴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느낌이 힘들었어요. 잠도 잘 못 자요.

■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힘들었나?

최순실 게이트 때, 태블릿 PC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나갈 기사들이 아닌데. 문준용 씨 사건 때도 거짓 제보로 밝혀졌잖아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때도 너무 심했고요. 건국절 논란 기사도..그 때 센터 감독님들도 "이게 뭐야?"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정치부 기자님들, 다 자유한국당 위주로 기사를 쓰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고, mbc 정말 망가졌구나.

■ 잠을 못 잘 정도인가?

김장겸 사장 출두한 날도 자막 인 아웃 했는데 그날 잠을 못 잤어요. 저희는 비록 파견 계약직이고 AD지만 저희들도 언론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공정정보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의든 타의든 언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 비정규직으로서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어차피 파견직이고 파리 목숨인데, 너희들이 해서 뭐 해?' 그런데 (MBC뉴스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까지 이러겠어요. 파견계약직이라고 해서 생각 없이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MBC 뉴스는 공정성을 잃어버린 거 같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 같아요. 방송을 이용해서 사심을 채우고 있는 거 같아요.

■ 재취업도, 생계도 당장 어렵게 되지 않나?

쉽지 않죠. 떠나기 아까운 직장인 건 맞아요. 처음엔 자랑스러웠고 친구들 불러서 회사 구경시켜주고 그랬는데, 나중엔 얘기 안 하고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직의) 두려움보다 (일하는) 고통이 더 커서 하루 빨리 떴땡해지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 좀 더 견뎌볼 수도 있지 않았나?

하루하루가 방송이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싫어요. 아직 파업 끝나지 않았고 김장겸 사장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꾸역꾸역 방송 나가는 거에 일조하고 있는 건데 전 그게 싫었어요. 하루도 못 견딜 거 같아요.

공범자들 외전 1. 김도인 편



출세 길은 그렇게 열렸다. 2013년 7월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신동호의 시선집중>이 됐다. 진행자 교체 전후로 <시선집중>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주의료원 사태, 조세 피난처와 전두환 비자금 등의 아이템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지 못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민심위 지적에 대해 당시 라디오국장이던 김도인은 “균형있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라고 지시했을 뿐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 라디오 PD는

“넌 또 왜 그러니?”

영화 <공범자들>을 본 일반 관객들은 하나같이 이 장면에서 ‘뽕’ 터진다. 최승호 PD가 김장겸 사장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느닷없는 씬스틸러가 등장해 촬영 중인 카메라를 가린다. 김도인 편성제작본부장이다. 당황한 최승호 PD가 “넌 또 왜 그러니?”라며 비키라 주문하지만 김도인은 끝내 출연에 욕심낸다. 이 장면을 포함해 세 번이나 등장하지만, 끝내 영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김도인. 그래서 준비했다, <공범자들 외전-1. 김도인 편>. 비록 영화에서는 보조출연에 그쳤으나 이 장면에서는 주인공이다.

라디오 진행자 하차시키며 출세 가도

김도인. 86년에 입사했다. 최승호 PD와 동기다. 김장겸 사장보다는 1년 선배다. 라디오 PD로 MBC 생활을 시작했다. 평 PD시절에는 열심히 하는 조합원이었다는 게 한 라디오 PD의 기억이다. 그러다 라디오편성기획부장 시절이던 2011년 4월 15일 본색을 드러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 씨에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차를 종용했다.

김도인이 “작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장·부장 건너뛰고 작가에게 압력 행사

무엇이 진실일까? 얼마 전 특보팀은 김도인이 작가들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노골적으로 프로그램에 간섭해왔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입수했다. 라디오국을 떠나 편성제작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도인이 올해 4월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작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부다.

김도인은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의 한 변호사나 김여준씨 등을 직접 거론하며 작가가 이들을 섭외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사장이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는 게 이유였다. 담당PD-라디오부장-라디오국장이라는 위계를 무시하고, 개별 작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프로그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영방송 경영진의 역할일까?

총파업이 시작되고 나서 작가들에 대한 김도인의 압박은 한층 거세졌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담당하는



▲ 대화명이 '알수없음'으로 된 건 김도인의 휴대전화기나 전화번호가 바뀐 뒤부터 대화명도 '알수없음'으로 바뀌었다는 게 해당 작가의 설명이다

작가에게는 “현실파악을 잘 하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영진이 쉽게 지는 게임이 아니다”, “노조 애들 너무 믿지 마라”고 하는가하면 “라디오 파행 방송 나간다고 경영진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라디오만 망가지는 거”라며 회사야 어찌됐든 자신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저열한 인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본부장 직함을 달았으나 공조직을 이용한 정당한 업무 대신 라디오 프로그램 개별 작가들에게 개별 카톡을 날리며 자신의 위계를 한껏 뽐내야했던 남자. 이제 그 무거운 직함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시라.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골적이고도 부당한 간섭의 증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해명을 요청한다.

지역MBC 공범자들도 즉각 물러나라

지역에 투하된 낙하산 사장들은 서울에서 해오던 악행을 그대로 자행했다. 여기에 결탁한 지역의 일부 보직자들은 지역 민심을 왜곡한 채 극우적 색채의 보도를 일삼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을 표적 징계로 철저히 응징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혁재 대전 MBC 보도국장이다.



쫓불 민심 외면...동료에겐 폭언

이진숙 사장이 부임하면서 대전 MBC 뉴스는 생뚱맞은 중동 뉴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정작 지역의 중요 현안들은 축소했고, 쫓불 민심도 외면했다. 이진숙의 입김도 문제였지만 보도를 총괄하는 최혁재 보도국장의 책임 또한 컸다. 최 국장은 “매번 하는 쫓불집회를 굳이 할 때마다 보도할 필요 있느냐”며 어처구니없는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날, 모든 언론이 생방송 특보 경쟁을 벌이던 와중에도 “전 대통령을 저렇게 못살게 굴 필요 있느냐?”는 남다른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십 수 년을 함께 한 선·후배, 동료들도 함부로 대했다. 카메라 기자들에게는 “당신들은 기자가 아니라 보도국에 파견 나온 카메라맨”이라고 망발을 퍼붓고, 심지어 부서 명패까지 떼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몇몇 카메라 기자들은 보도 업무를 떠나야 했다. 한마디로 대전판 ‘블랙리스트’의 주도적 실행자였다.

끊임없는 이간질...노사 분열 유도

이해하기 힘든 기행으로 유명세를 탄 춘천 MBC 송재우 사장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최연호 경영심의국장이다. 인사위원장으로 노조 지부장 징계를 주도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사장과 의기투합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장본인이다. 조합원들을 채증한다며 사장실에 CCTV를 설치하고 느닷없이 조합 출입문 보안장치를 강화하는가 하면, 쟁의활동을 하는 지부장과 조합원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과 사장이 연차 수당에 대한 합의를 작성하자 합의 내용을 조작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다가 발각돼 감봉 1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 노조와 사장 사이의 가교 역할은커녕 그릇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장에게 제공하고, 양측을 이간질해 노사 분열을 유도했다는 게 춘천지부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평가다.



지역 출신이면서 본사 눈치 보기에 급급해 조합 수석부위원장 파견 발령을 아직도 불허하고 있는 대구 MBC 김환열 사장, 요직을 거치면서 광역화에 반대하는 지역 구성원들을 중징계로 탄압하고 김장겸과의 친분을 적극 활용해 사장 자리까지 오른 경남 MBC 김일곤 사장 등도 지역 MBC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출세에만 혈안이 된 ‘공범자들’이다. 우리는 권력의 입맛에 맞추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공영방송을 도구로 사용한 공범자들을 모두 기록하고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뜬 것이다. 그것이 공영방송 MBC를 재건시키고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길이다.